

##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 성호경
- + 이달의 시작 성가 (271장)
- + 출석확인파 인사 나눔
- + 소공동체 기도문
-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마태 22, 34-40)

###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눕니다.

###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 ※‘5분 신앙상식’을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 + 소공동체가
- + 영광송 및 성호경

##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 함께하는 복음 묵상

### 마태 22, 34-40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시며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라고 가르치신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 중요성에 있어서 따로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명시하시는 것이다.

바리사이파 사람들 중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든 계명들 가운데 어느 것이 첫째가는 계명인가를 질문한다(36절)

당시 유대인들은 십계명에 근거한 여러 세부적 법규정들을 613개나 가지고 있었으며 예수님께서서는 이 복잡한 조항들을 율법의 근본정신인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요약 하셨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문(신명6,5)을 인용하며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첫째가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다.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서 유일한 주님이신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37절)

둘째가는 계명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레위19,18)을 가르치심으로써 율법을 거부하거나 수정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첫 번째 계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 하며, 두 계명을 한데 묶어 연결시킴으로써 율법의 본질을 분명하게 밝혀 주신다.

더욱이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웃을 위해 살다간 분으로, 사랑의 이중계명을 몸소 실천하신 것이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느님과 인간은 결코 떼어 생각할 수 없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웃 사랑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실천을 요구한다.

나에게 잘 해주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 모두가 나의 이웃인 것이다.

이웃 사랑은 참으로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자신을 포기하면서 서로 봉사하는 것이다.

# "민수기의 내용과 구조!"

5분 신앙상식

민수기의 명칭은 두 번에 걸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 때문에 붙여진 것으로 그리스 말로는 '아리스모이', 즉 '숫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숫자나 일람표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장정 수(1, 20-47), 레위 지파의 인원수(3, 14-51), 봉헌물의 양과 수(7, 10-88), 두 번째 이스라엘 지파의 장정 수(26, 5-51) 등입니다.

레위기가 성막 건립 이후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면,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열두 지파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조직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 줍니다.

또한 민수기에서는 다른 오경의 책들과는 달리 일반적 차원의 법규가 아닌 특정한 문제에 대한 규정들을 다룹니다.

1장; 26장 : 인구조사.

3장 1절-10장 10절 : 사제직과 관련된 제반 규정.

10장 11절-20장 13절 : 광야에서의 생활과 몇 가지 규정.

20장 14절-36장 13절 :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 강 동쪽에서 벌이는 전쟁들.

## 공지사항

### -목주기도 성월

목주기도 성월을 맞이하며 세계 평화와 성교회 그리고 우리 본당에 필요한 은혜를 청하며, 열심히 목주기도를 봉헌합니다.

### -전교의 달

전교의 달: 한사람 이상, 쉬고 있는 교우들의 권면과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도록 다짐 합니다.

## 다음 달 성경말씀

### 마르 13, 33-37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생애의 마지막이라면 가장 아쉬운 것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 소공동체 기도문

○ 하느님 아버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웹미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땀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볼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소공동체가

기도하며...

작사 원정수  
전곡 현정수

하느님 백성 자녀들아! 모두 모여 라

Chords: D, A, Bm, G, Em, A7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 함께 노래하자 알렐루야

Chords: G, B, Em, E7, A7

중-기 하 고 공 사 하 자 세 상 모 두 에 게

Chords: B, A, Bm, G, Em, A7, B, D7

마 음 보 - 아 기 도 하 고 합 계 나 가 자 천 국 으 로

Chords: G, D, B, Em, E7, A7

하느님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 구 역 반공동체

Chords: G, D, B, Em, A7, D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 구 역 반공동체

Chords: G, D, B, Em, A7, D